



COVER STORY
Retro? Newtro!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이십세기에서 이십일 세기까지, 오래된 동네 배다리를 한 공간을 맴돌고 넘쳐나는 시간. 이철완 씨는 1950년대 아버지가 시작한 '이십세기약방'의 역사를 오늘 '조복한의원'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지 사진 류창현

당신의 한마디가 인천이 됩니다

인천광역시 민선7기 비전슬로건 공모전



공모기간
2018.08.22 - 09.07 (17일간)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형식
15자 내외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

공모내용
민선 7기의 시정방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슬로건

- ※ 민선7기 주요 정책 방향
- 서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도모하는 인천
 - 구·신도시가 함께 상생하며 나아가는 인천
 - 경제 활성화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
 - 여유 있고 빠른 수도권 교통을 누리는 인천
 - 복지 정책으로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인천
 - 시민들 모두가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인천

제출서류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응모방법
홈페이지 접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참여→공모전 접수
이메일 접수 |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sukhwan1@korea.kr) 제출
(1인당 5건 이내 응모 가능)

시 상
금상(당선작) 1편 100만원 / 은상 1편 50만원 / 동상 1편 30만원
노력상(본선) 27편 3만원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각 상금은 상품권으로 제공)
참여상(추첨) 30편 5천원 (커피쿠폰 제공)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브랜드담당관실 (032)440-3085



중구 애관극장 영사실

당신은,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

영화를 소비한다기보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다.
‘애관극장’. 사람들이 아직 이곳을 찾는 이유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웠던 그날을 추억하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120여 년 시간이 고인 극장 깊숙이에는 영사실이 있다.
최경술(58) 영사 기사는 동방, 미림 극장 등을 거치며 40여 년 영사기를 만졌다.
디지털 영사기로 바뀐 지는 5년이 채 안 됐다.
“지금은 일도 아니에요. 예전에 필름을 돌릴 때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들에게 맞아가며 어렵게 배운 기술이었다. 실수로 스크린이 까맣게 변하기라도 하면
관람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지나고 보니 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나이 든 영사 기사의 눈시울이 스크린 불빛에 반짝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9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장훈(브랜드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 편집장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CONTENTS

- 04 인천 미소 달라질 도시 풍경, 시민의 삶 담길 外
- 06 가을, 근대 문학 기행 한국 노동 문학의 중심, 인천
- 12 비전 인천 인스로드
- 16 도시공.감. 재래시장의 변신 - 원도심의 사람들
- 22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⑨ 초록한의원 - 이십세기약방
- 26 문화 콘텐츠 1인 방송
- 30 인천 VS 세계 도시 ⑨ 배다리 헌책방거리 VS 영국 헤이온와이
- 34 얼굴 좀, 봅시다 ‘ON-AIR’는 나의 에너지, 조현정
- 36 문화 캘린더 어린이 뮤지컬 ‘헤이지니&럭키강이’ 外
- 38 문화 인천 조각 35년
- 40 다이내믹 인천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 42 시정 뉴스 추경 9조6,711억원 편성...5대 민생복지 주력 外
- 48 의정 뉴스 재난현장 방문, 시민안전 점검 外
- 50 컬러링 인천 추석 달맞이 명소
- 52 Info Box 열린광장 시민 아이디어 공모 外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어둠 속에 빛을 주다 콜맨Coleman
- 58 모닝커피 한잔 살아 있는 언어로 덧칠하고 싶은 강화
- 59 인천 사는 나무 남동구 간석동 향나무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 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달라질 도시 풍경, 시민의 삶 담길

독자 박형미 서울시 종랑구



초등학교 시절, 한때 인천 시민이었던 제게 인천은 늘 친숙한 도시로 느껴집니다. 외가 식구들과 함께 월미도에 가서 유람선을 탔던 기억, 오빠와 함께 문학경기장에 야구를 보러 갔던 기억이 어느 날 불쑥 인천을 닮은 골목길을 걸을 때, 야구복을 입고 왁자지껄 걸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생갑니다. 그렇게 추억 속 도시는 시간이 흘러 이모가 ‘제2의 고향’ 삼아 살고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이모가 애독하는 잡지이자 어느새 이모를 만나러 갈 때마다 꼭 챙겨 보는 잡지가 됐습니다. 지난 호 강화도에 아시아 최장 길이의 루지장이 생겼다는 ‘익스트림 스포츠’ 기사를 읽다가 학창 시절 친구들과 강화도에 놀러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그때 그 친구들과 루지를 타러 가고 싶네요. ‘Made in Incheon’ 수제 맥주의 맛도 궁금합니다. 올여름 폭염을 견디게 해준 ‘절친’이 바로 냉장고 속 시원한 맥주였거든요. 직접 가서 먹는다면 그 맛이 끝내주겠죠. 특히 ‘소신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좇고 싶지 않다’는 젊은 사장님이 마음으로 빚어낸 맥주라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5월호에 실린 ‘인천 중주길’ 기사는 읽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평소 인천의 공기가 탁하다고 느끼던 차에 S자 녹지축이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사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그곳이 인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도시의 깊은 멋과 향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안겨주는 도시, 그곳이 인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인천’이 그 달라지는 도시의 풍경과 시민의 삶을 담길 바랍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Newtro! 인천

‘굿모닝인천’ 8월호에서 신포동 수제 맥주 양조장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평소 수제 맥주를 좋아해 서울이나 파주 헤이리까지도 가서 먹었거든요. 시간의 흔적을 재탄생시킨 그분들의 노력이 언젠가 빛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인천이지만요.
- 김수연 부평구 삼산동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되어줄 이 자랑스러운 문화 콘텐츠입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 포에버!”
- 이현정 남동구 구월동

인천을 알고 싶다면 ‘굿모닝인천’을

생의 절반가량을 인천에서 보냈지만, 누가 인천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늘 ‘굿모닝인천’을 읽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소장할 만큼 훌륭한 잡지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을 알리는 좋은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 최상근 미추홀구 용현동

지나온 시간과 내일의 소중함

‘굿모닝인천’ 덕분에 인천의 새로운 소식과 지나간 시간의 흔적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도 배우고, 아이들에게도 인천을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깊고 풍부한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 더불어 신도시가 그려나갈 미래와 원도심의 깊은 역사가 균형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 강미조 연수구 송도동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 보세요!



숨 아오른 해처럼 구친 노동자의 힘

| 人 | 間 | 問 | 題 |

인천의 문학은 시대를 관통해 왔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 한국전쟁, 산업화... 질곡의 역사 한가운데서 파이고 덧대며 단단해진 땅,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지켜보던 바다. 전쟁으로 떠밀려온 피란민과 먹고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이 뒤엉킨 삶. 이 모든 것이 인천의 문학적 서사를 형성하는 자양분이 됐다.

강경애의 소설 ‘인간 문제’는 1930년대 인천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시대의 아픈 현실을 꿰뚫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다. 그는 한때 인천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삶을 자산으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끌어안았다.

돈을 벌기 위해 평생 공장 노동자의 삶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흔적을 따라 걷는 길, 그들이 흘린 땀과 삶을 위한 외침이 아직 맴도는 듯하다.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 장희숙 선생과 인천문화관광해설사 김인수, 송미영 선생이 그 길을 함께했다.

도움·감수 장희숙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 소장 |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 운동이, 인천에서 일어났다.
1890년대 두량군(斗量軍)들이 파업을 하던 인천항 야적장 ‘칠통마당’의 현재 모습.
앞에 보이는 건물은 옛 일본우선주식회사다. 현재 남은 건물은 1888년 신축한 것으로,
아픈 역사를 걷어 내고 인천아트플랫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섰다. 그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필요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땅. 대한제분, 대성목재, 동양방직(동일방직), 대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한국유리, 인천전기(일진전기), 동국제강, 인천제철(현대제철)이 바닷가를 둘러싸며 거대한 산업 벨트를 이루었다. 그 안엔 가난 속에서 먹고살아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가 있었다. 너도나도 힘들던 시절, 공장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희망의 상징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그 치열한 삶은, 인천을 한국 노동 문학의 중심에 서게 했다. 대표적인 근대 문학 작품인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인천을 배경으로 식민지 시대의 궁핍한 현실을 증언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친다.

긴담모퉁이길은 1907년, 홍예문을 만든 공병대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축현역(지금의 동인천역)과 통하는 길로, 일본인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였다.



소설가 강경애(1907~1943)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인간 문제’는 노동자의 아픈 현실을 예리하게 파헤친 근대소설이다. 한때 인천에서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던 삶을 자산으로 썼다.

| 人 | 間 | 問 | 題 |

이 새벽만은 노동자의 세상



긴담모퉁이길

‘인천의 이 새벽만은 노동자의 인천 같다! 각반을 차고 목에 타월을 건 노동자들이 제각기 일터를 찾아가느라 분주하다. 그리고 타월을 귀밑까지 눌러 쓴 부인들이 벤토를 들고 전등불 아래로 희미하게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또 나타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미소에 다니는 부인들이라고 한다.’
‘신철’이 인천에서의 첫 추억을 떠올린 대목이다. 대학생 신철은 노동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흠모하는 여성 ‘선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강요에 맞서 집을 나간 후,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해 인천으로 온다. 그가 새벽 출근길에 나선 노동자들을 바라보던 장소가 긴담모퉁이길이다. 길 위에는 길은 어둠 속, 정미소 선미공들을 희미하게 비추던 나무 전봇대가 아직 남아 있다.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정미소로 향하는 노동자들을 비추던 나무 전봇대

동일방직 담길.
기숙 생활을 하며 통제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은, 저 높다란 담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없었다. 그 맞은편에는 공장에 다니던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살던 주택가가 있다.

가로막힌 거대한 벽



동일방직 담길



동일방직은 한때 우리나라 방직산업의 중심이자 노동 운동의 현장이었다. 이 회사는 당초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동양방직 인천공장으로 출발했다. ‘1932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동양방직은 1933년 10월 1일 방기 3만1,488추와 직기 1,292대로 조업을 개시했다.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1,300여 명의 공장 근로자를 모집했다.’(매일신보 1932년 5월 16일)
“공장의 대형화가 동일방직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3,000여 명이 넘었어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 하면서, 점차 그들 목소리를 내고 노동 운동에 눈을 뜹니다.” 장희숙 선생의 말에 김인수 선생이 설명을 덧붙인다. “1970년대 여자가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대부분 동일방직이었어요. 이 공장 여공들은 서슬 퍼런 유신 정권에 맞서며 우리나라 노동 운동에 한 획을 긋습니다.” 유신 말기, 동일방직에서 일하던 어린 딸과 누이는 알몸 시위를 하고 동물을 뒤집어쓰면서도 약삭같이 일어났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동방직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시대의 억압된 구조를 몸소 느낀다.



‘대동방적공장에서는 사숙을 허하지 않고 전 여공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것이 한 철칙이었다. 내일은 일시에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생각을 하고 월미도로, 만국공원으로 해가 질 때까지 돌아다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할 만큼 통제받았다. 임금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통장을 만들어 회사가 보관하고, 감독이 채찍을 들고 감시했다.

‘우리문 밖에 운동장을 거쳐 높이 솟은 저 담! 아까 이 기숙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저 담이 몹시 걱정이 되었다. 벽돌로 까맣게 올려 쌓고 그 밑으로 몇 길이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그 철벽 같은 담에서는 바늘구멍만한 것도 하나 얻어 볼 수가 없었다.’ 결국 선비는 일하면서 얻은 병으로 죽어서야 담장 밖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견디고 견디며 살다 죽어간 이들의 혼이, 저 높다란 공장 담벼락 위로 포개고 포개져 있으리라.

대한제분 앞길.
월미도 뚝방길로, 이 길로 소설 속
방적공장 여공들이
애탕신사로 야유회를 갔다.

“그들은 일제히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으며 검정 구두까지 신었다.
첫째는 흙을 지고 끄덕하며 오다가
참말 여공들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과
무어라고 형용 못할 반가움에 흘금
바라보았다.”

이 길에서 첫째가 같은 고향 출신 ‘선비’를
보게 된다.

어둠 뚫고 솟아오른 해



축항

1930년대 인천항, 한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 인천항운노동조합

‘짐이 와르르하고 부두에 쏟아졌다. 신철이는 차츰 숨이 차오고 팔이 떨어져 오는 듯했다. 짐은 큰 상자며 철판이며 대두박이며 이런 종류였다. 집에서 떨어지는 먼지며 바람결에 불려오는 먼지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가라앉지를 못하고 공중에 뿌영게 떠돌았다. 사람을 달달 볶아 죽이고야 말려는 듯한 지독한 별은 신철의 피부를 벗기는 듯했다.’

신철은 부두 노동자로 땀 흘리며 노동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힘을 한데 모으지만, 육체노동의 고통 속에서 흔들린다. 결국 부두 노동자 파업으로 검거된 뒤 한계를 넘지 못하고 끝내 뜻을 굽힌다. 이를 본 첫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자 계급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쟁의 현장이에요.”
두량군들이 파업을 하던 인천항 야적장
‘철통마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장희숙 선생.

인하대학교에 재직했던 고 윤진호 교수는 ‘조선신보’
1892년 5월 13일자에 보도된 ‘인천부두 두량군(斗量軍)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쟁의로 기록된 1898년 목포노동쟁의보다
빠른 시기에 인천항 부두 노동자의 한 부류인
두량군의 노동조합이 존재했고,
파업으로 부당함에 맞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한국 노동운동사 첫머리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소작농의 아들딸이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도시의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두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살기 위한 몸부림은 파업으로 이어졌다. 1926년, 1928년, 1933년, 1935년, 1936년에 각각 인천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각각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민족적 차별에 대항하고 일제의 전시(戰時)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해가 벌겋게 타올랐다. 그들은 저 해를 바라보면서 단결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다. 오늘의 저 햇빛은 그들의 이 단결함을 보기 위해 저렇게 짙게 솟아오르는 듯했다. 동시에 무력하고 성명없던 자기들이 오늘 이 순간에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권리란 권리는 다 가진 듯이 생각됐다. 자기들이 단결함으로써 이러하고 있으니 기세를 부리던 백동태 안경을 위시해 기선의 기중기며 선원들까지 아주 동작을 잃어버리고 꼼짝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힘을 깨닫는 노동자들의 벽찬 감정이, 인천항에 뜨겁게 솟아오르는 태양에 고스란히 투영된다. 두 손 불끈 쥐고 살아갈 힘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 저 빛은, 내일의 희망이었다.



1930년대 인천우체국(현 중동우체국),
세관 거리 풍경과 오늘의 모습.
1914년까지 인천 앞바다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흙으로 매워졌다.

인천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17년부터 문학 작품 속에 담긴 인천의 장소를 찾아가는 문학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강경애의 ‘인간 문제’, 현덕의 ‘남생이’, 김중미의 ‘깽이부리말 아이들’ 등의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인간 문제’의 책장을 넘기며 걷는 길은, 우리나라 노동의 역사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다. 문학 답사는 시 홈페이지(inche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인천문화관광해설사회 ☎ 010-6547-0301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길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대기업 그 이상의 복지를 제공하고 업무환경이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다. 낡고 칙칙한 공장, 낙후된 시설, 회색빛 건물... 어렵פות이 머릿 속에 갖고 있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이젠 떨쳐내자. '회사 규모와 인지도'보다는 실속 있는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에 시선을 돌릴 때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스로드(InsRoad)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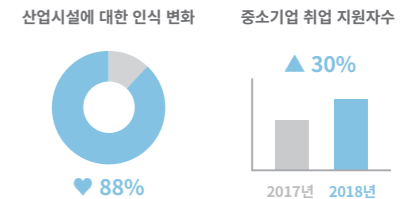
대상 : 산업시설 탐방을 희망하는 사람(중학생 이상)
인원 : 20~30명 내외
요금 : 무료
일정 :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단체일 경우, 협의 가능)
※탐방 일자 및 코스, 인원 등 인스로드 투어 일정은 사전 문의 후, IDSC 홈페이지(www.idsc.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60-0223(0246)

사람과 중소기업을 잇는 새길, 인스로드

인천은 1965년부터 조성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2016년 고용률이 -6%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리 시는 매년 심화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 및 구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스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스로드(InsRoad)'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잇는 새길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인천의 산업시설을 탐방하는 길(Incheon Industry Road)의 줄임말이다. 인천의 산업(Industry)을 연상시키면서 人's(인스)의 발음과도 같도록 해 사람이 중심 되는 환경의 우수 산업시설 탐방길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인스로드는 산업시설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탐방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개의 우수시설을 방문하는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과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은 모두 375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설문 조사 결과, 산업시설에 대한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후 '(매우)좋다' 88%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시가 구직 사이트에 추천해 아름다운 공장 직원을 채용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년 대비 취업 지원자수가 30% 증가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로 인스로드 사업은 지난 3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우수 일자리 정책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인페쏘 제공



‘아름다운 공장’ 인페쏘의 건물 전면은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광고판이자, 그 자체로 훌륭한 미술 작품이다.

세계가 인정한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인스로드 산업시설 탐방 코스는 인천시가 직접 선정한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서 수상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들 대상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그램이었던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2016년 3개, 2017년 2개 등 모두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추가 선정 중에 있다.

‘아름다운 공장’ 중 하나인 (주)인페쏘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금속 소재를 레이저 가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답게 전체적으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가운데 전면부의 외벽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다양한 깊이와 너비로 가공해 설치했다. 덕분에 세련된 건물 외관이 단순히 철을 가공하는 곳이 아니라, ‘디자인’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특히 근로자 쉼터와 체력단련실,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봉열(61) 대표는 “이직자가 거의 없고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70% 이상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따른 기술 고숙련화와 기술력 축적이 가능했다”며, “공장의 아름다움과 환경개선이 바로 기술력과 부가 가치 상승을 이끄는 선순환의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송도국제도시 인천대학교 근처에도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장’이 있다. 바로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주)이너트론.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통신산업 분야의 국내화를

선도하고 세계 일류 상품 개발,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옥은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주차장과 카페, 갤러리를 갖추고 있다. 조학래(47) 대표는 “남동산단 내에 임대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구직자들이 낡은 공장 외관을 보고 구직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멋진 사옥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중소기업도 근로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Beautiful Factory Project’란 명칭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최고 권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본상을 수상해 국제적으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공장’ 이너트론은 1층 로비를 직원을 위한 갤러리 공간으로 구성했다.



INTERVIEW



“인스로드 통해서 취업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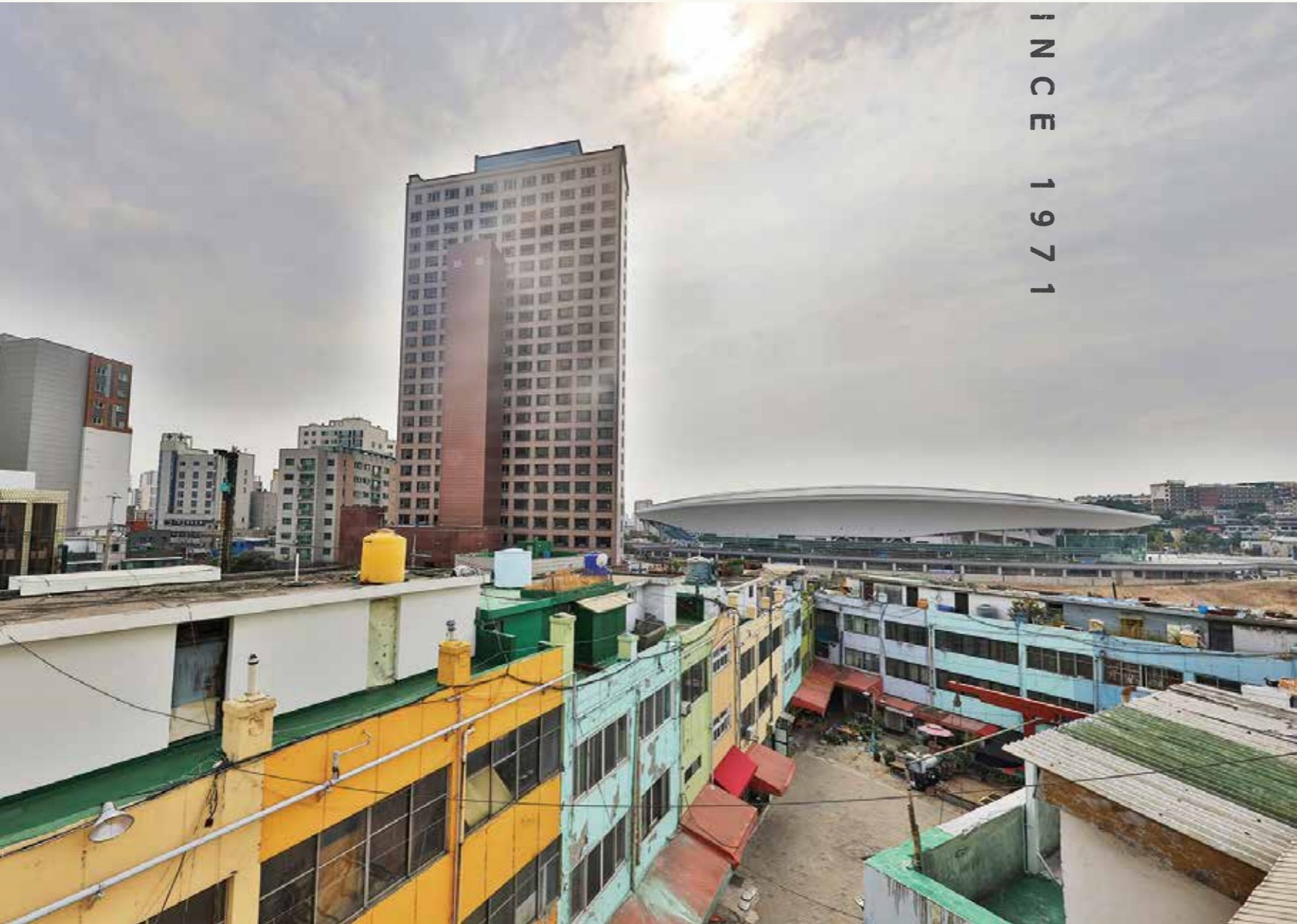
인스로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고 TV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도 출연하게 된 새내기 직장인 정하영(25) 씨.

그녀는 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에 1,800개의 자기소개서를 썼지만, 모두 떨어졌다. 스스로 구직 기계처럼 느낄 무렵, 인천시의 ‘인스로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결국 지난해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인 (주)아이케이에 입사해 비로소 원하던 일을 하게 됐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훌륭한 중소기업이 많더라고요. 규모는 중소기업이라도 사업 자체가 작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취준생에게 대기업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채용 사이트에서 ‘인천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신뢰감이 들어 인스로드 관련 기업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며, 사회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인스로드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 작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닦아 나가길 기대해 본다.



S I N C E 1 9 7 1



오래
된
미래

송의평화시장

송의평화창작공간

Since 1971.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47년. 송의평화시장은 1980년대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본래의 기능을 잃고 빛바래 갔다. 하지만 3년 전 ‘송의평화창작공간’이 문을 열고 젊은 문화예술인이 모여들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멈춰 있던 공간, 잊혀가던 ‘오래된’ 도시에서 새로운 ‘미래’를 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도로변 상점가, 골목 안으로 조금만 고개를 디밀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진다. 작은 광장을 둘러싼 색색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 1971년 문을 연 송의평화시장은 도원동과 송의동 일대 주민이 즐겨 찾던 농수산물 재래시장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00여 개 점포가 성업을 이루고 안마당이 좌판으로 가득 찰 만큼 활기 넘쳤다. 하지만 이 일대가 번두리로 밀리면서 주민이 떠나고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렇게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던 시장은, 결국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버렸다. 지금껏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장사한 지 30여 년 된 생선 가게와 쌀집, 방앗간 등 예닐곱쯤 된다.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송의평화시장에 자주 왔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과일도 사고 반찬거리도 샀다며 추억을 되새기곤 하세요.” 송의평화창작공간의 박준석(33) 작가는 화수동에서 태어나 이 일대 많은 사람이 그렇듯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신도시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다 3년 전, 빛바랜 기억 속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았다.

시와 미추홀구는 2015년, 사업비 8억4,500만원을 들여 시장의 빈 점포 6개 동을 송의평화창작공간으로 만들었다. 젊은 문화예술인이 모이면서 시장은 새 숨을 내쉬었다. 지역 작가들과 주민, 오가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전에 없이 생기가 돈다. “처음에는 마을 분들이 우리를 경계했어요. 구도심의 발달로 원주민이 갈 곳을 잃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우려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기특하다며 어깨를 두드리주실 만큼 가까워졌답니다.”

송의평화창작공간에는 현재 레지던시 작가 7개 팀과 입주 작가 6개 팀,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입주해 있다. 공공미술, 리사이클, 전통술·차 빚기, 도자기 공예 등 창작의 영역 또한 다채롭다. 오래됐다고 해서 새롭지 않고, 가치 없는 건 아니다. 송의평화시장이 이들의 자유분방한 시도를 껴안을 수 있었던 건, 옛 모습을 간직해 온 덕분이 아닐까. 시장 모퉁이 오래된 가게의 낡은 천막 위로, 다사한 햇살이 떨어진다.

송의평화시장 옥상에 오르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내려다보인다. 하지만 곧 경기장 앞에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는 공사가 시작된다. 이 풍경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의 공방과 할머니의 곡물 가게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송의평화시장



예술 장터 열리는 재래시장

송의문화로예술시장

‘송의평화창작공간’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원 데이 클래스인 ‘송의문화로예술시장’이 열린다. 9월에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천연염색하기, 캘리그라피 등을 배울 수 있다. ‘즐거움일제작소’와 ‘라운카페’에서 진행하며 수업료는 1개 강좌당 3,000원이다.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288-4
문의 ①442-8018



오늘, 옛 시장에 살다

속도가 아아간 풍경을 붙잡고 있는 고마운 동네. 이곳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새 숨을 불어넣고 온기를 퍼트리는 이들은 누구일까.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옛 재래시장에 숨은 보물창고 같은 ‘송의평화창작공간’.

오늘 이 안에서, 세상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송의평화창작공간
김진미 작가의 손글씨

송의평화창작공간
임양천 박준석 김진미 김경원

Interview

1. 하는 일은?
2. 송의평화시장에 온 이유
3. 원도심에 대한 생각
4. 추천, 인천의 원도심 명소
5. 인천의 발전에 필요한 지역 문화는?
6. 당신에게 인천이란?



A: 꽤 랜장은 동네, 인천

임양천 (45) 리사이클 작가, 수집가

1. —— 지금은 쉬고 있다. 당장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지낸다. 하지만 이 공간에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절로 생긴다.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2. —— 언젠가 가고 싶은 목공방이 있어 검색해서 찾아왔는데, 내 비게이션이 이곳으로 잘못 안내했다. 그런데 보는 순간 반해버렸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도자기 공예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다, 아예 집을 사서 들어왔다.
3. —— 경쟁하는 삶이 싫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맘 편히 살고 싶었다. 원도심은 그런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쓰레기가 가득 찬 폐허를 손보는 일이 막막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치우다 보니 번듯한 공간이 나왔다. 19m²(6평)면 살아가기 충분하다.
4. —— 우각로문화마을에 일주일에 두서너 번 간다. 2년을 다녔는데도 아직 그 길이 즐겁다. 길을 가다 보면 사잇길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막히고, 그러다 다시 연결되고...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은 정겨운 동네다.
5. —— 가깝게 송의평화창작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제는 미술 체험을 했는데, 동네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다. 저변 확대를 위해 무료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면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새 식구를 들일 새장을 만들고 있는, 임양천 작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에, 19m²면 충분하다.

A: ‘주인공’이 되는 도시

박준석 (33) 송의평화창작공간 미술감독

1. ——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영역에 갇히지 않고, 예술 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다. 옵티컬 아트(Optical Art)를 중심으로 그림, 조형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든다.
2. —— 문득 생각해 보니, 인천 사람인데도 정작 인천에서 활동하지 않았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고 싶었다. 공간적인 매력도 느꼈다. 작가와 예술-문화 단체 등이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어우러져 ‘다가가는 예술’을 할 수 있어서 좋다.
3. —— 도시가 낙후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는 사람이 많다. 과거의 뒷안길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새로 태어난 이곳처럼, 원도심이 살아나면 좋겠다.



어릴 적 엄마 손 잡고 다니던 시장에서
오늘, 새로운 예술을 꽃피우는 박준석 작가.

4. ———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면, 수봉산에 있는 수봉공원으로 간다.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마당 있는 집들이 웅기종기 정겹게 펼쳐진다. 노을이 질 때면, 더욱 운치 있다.
5. ——— 내항 8부두에 있는 창고에 대기업이 문화 콘텐츠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드는 공간과 문화라야 그 의미가 있다. 건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되살려 새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온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
6. ——— ‘주인공’이 되는 도시다. 많은 작가들이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인천은 제2의 무대라고 생각한다. 이 안에선 주 무대에서 시도하지 못하던 것에 도전하고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인천은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비어 있는 곳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다.



‘다:락’의 김진미 대표는
시의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지역 문화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A: 나날이 새로워지는 원도심

김진미(31) 다:락(樂) 대표

1. ——— ‘다:락(樂)’은 다락방과 다양한 즐거움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 특기를 살려, 캘리그라피, 베이킹, 클레이 등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2. ——— 무엇을 하는 공간일까, 궁금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재래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 와서 작가들과 단체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는 공간이다.
3. ——— 결혼하면서 도화동으로 왔다. 한때 사람들로 들끓었지만 지금은 조용해진 동네. 하지만 그 안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원도심을 알리고 싶다.
4. ——— 어린 시절, 언니들과 배다리에 자주 갔다. 그때는 길 양쪽으로 수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책방이 들어서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종이 냄새가 기분 좋게 코끝에 스몄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책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깝다.
5. ——— 인천시는 인천의 문화공간을 시민 중심으로 꾸미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역시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이 활성화돼야 지역 문화가 산다. 민관이 같이 움직여야, 시민이 좀 더 깊이 있는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 벗어날 수 없는 도시다. 공장지대가 있는 서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한동안 인천을 떠나 다른 도시에 사는 걸 고민한 적도 있다. 하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해온 게 많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A: 주민과 즐기는 문화예술

김경원(44) 문화바람 대표

1. ———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은 ‘생활문화 운동으로 시민과 연대해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든다’라는 당찬 포부를 안고 2005년 창립했다. 그동안 인천의 낙후된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예술을 확산시켜 왔다.
2. ——— 특별히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큰 뜻을 품고 찾은 건 아니다. 마침 사무실 임대 기간이 끝나가면서 머물 공간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사용료가 무료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3. ——— 원도심이라고 해서 신도시와 다를 건 없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어디든 같다. 전에 부평과 남동구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동네 분들과 잘 지내고 있다. 마음은 다가갈 수록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4. ——— 미추홀구에서 조성하는 구민예술촌(Art-belt)에 관심을 둔다. 우각로문화마을과 송의목공예마을, 송의평화시장을 엮어서

예술촌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 일대에 가면 목공예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길 권한다. 건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가꾸놓은 꽃밭도 있고 텃밭도 나온다.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5. ——— 인천의 문화 수준이 전보다 높아졌다. 전엔 좋은 공연을 보려면 서울 대학로까지 가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부터 ‘오 당신이 잠든 사이’처럼 좋은 공연을 인천에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에서도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같은 문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 인천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서 나이 들어가고 있다. 다른 도시는 낯설고 정신없어서 싫다. 살아온 만큼 정이 들어서, 누가 인천 이야기라도 하면 옆에서 좋은 방향으로 거들게 된다. 인천이 잘되면 좋겠다.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의 김경원 대표는
송의평화창작공간에 온 후,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





이십 세기에서 이십일 세기까지, 그 남자의 시간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시간이 고인 동네 배다리, 그 골목 한편엔 아버지가 전쟁 속에서도 지켜낸 ‘이십 세기’ 약방의 역사를 ‘이십일 세기’인 오늘 곳곳이 이어가는 아들이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포화 속에서 살아남다

“‘이십세기약방’. 무슨 뜻이지?” 1950년 5월, 동구 배다리에 신기한 이름을 한 약방이 문을 열었다. 앞서도 너무 앞섰다. 당시만 해도 생소해서 그 뜻을 쉽사리 알 수 없었다. “이름을 별나게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힘 안 들이고 가게를 알리지. 사람들이 이십 세기란 말을 잘 몰랐어. 이 길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신기해 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

1950년 5월 1일, 이종현(90) 어르신은 스물세 살 나이에 동구 배다리에 이십세기약방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가게 문을 연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전쟁이 났다.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부랴부랴 고향 인천리로 피란을 갔다. 훗날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면서 돌아와 보니, 약이란 약은 깡그리 쓸어가 버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다 1·4후퇴 때 팔미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내려갔다. 이번엔 이천전기 변전소 사택에 사는 형님 댁에 약을 숨겨두었다. 일본식 집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다다미를 들어내니 다행히 약들이 온전히 남아 있었다. 다시 시작했다.

오직,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



1959년, 이십세기약방 앞에서
박문여고 학생들
(사진 제공 '인천이야기발전소')

이십세기약방은, 전쟁의 역사 한가운데를 지나 1990년대 말까지 배다리 골목 한편을 지켰다. 쏘아지는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시대의 변화는 끝내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전성기는 길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긴 세월 호황을 누렸다. “당시 ‘약을 구하려면, 배다리 이십세기약방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멀리 부평, 김포에서도 찾아왔지요. 의사들까지 우리 집에서 약을 사 갔습니다.” 아들 이철완(62) 씨가 좋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 당시 인천에는 스무 개 정도의 약방이 있었다. 대부분 손님이 많이 찾는 약들만 구비해 두었는데, 이종현 어르신은 달랐다. 막무가내로 쓸어 모아 창고 그득 쌓아놓았다. 물자가 귀하던 시절, 이 방식은 통했다. 뒤편에 있는 집 두 채를 사서 창고 건물로 쓸 만큼 가게 몸집이 커졌다. “2층 창고를 4칸으로 나눠 4명이 약을 관리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약을 찾아서 배달하는 사람에게 건넸지요. 한창 때는 직원이 4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어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손님을 받았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새벽빛이 부엌에 밝아올 때까지 장부에 숫자를 빼곡히 써 내려갔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처럼, 힘당은 데까지 일했다. 아들 둘 딸 셋, 자식들 잘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였다.



1950년 5월, 역사를 시작한 아버지의 약방(아래)은
2017년 4월, 아들의 한의원(위)으로 새 숨을 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는 맏아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말간 웃음이 번진다.



10년째 비어 있던 창고 건물은
근사한 정원이 됐다.(위)
약방이 리모델링되고, 아버지는 감회에 젖어
두 시간이나 공간을 둘러보셨다.

이 집 지하엔, 전쟁의 흔적인
방공호가 남아 있다.
신기해 하니, “그 시절엔 당연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아래)

덕분에 약방집 아들은 국민 영양제 ‘원기소’를 친구들에게 선심 쓰고, 소풍
가는 날이면 선생님들에게 품 나게 ‘박카스’를 돌렸다. 당시 이 음료수 한 병의
가격은 짜장면 한 그릇과 맞먹었다. 담임선생님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한의대에 들어가고 대학 교수까지 됐다. 한국노인병
연구소 소장이라는 어엿한 직함도 달았다. 아버지와 그의 곁에서 묵묵히 자
식들을 뒷바라지한,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기에 가능했다.

추억 위에 살다

올해로 아버지는 아흔이 됐다. “네가 오랜 세월 노인병을 연구해 왔는데, 정
작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생전 자식에게 바라는 것 없던 아버
지가 어느 날 맏아들에게 문제를 던졌다. 번뜩 정신이 났다. 죄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곁에서 지켜드리겠노라’고 마음먹었다.
그 길로 곧장 아버지의 평생 일터이자 가족이 살 부비며 살았던 고향집으로
왔다. 추억을 짓고 기억을 세웠다. 70여년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약방
간판은 건물 정면에 그대로 두고, ‘초록한의원’ 간판을 작게 옆 벽면에 걸었
다.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오리지널’이 이십세기약방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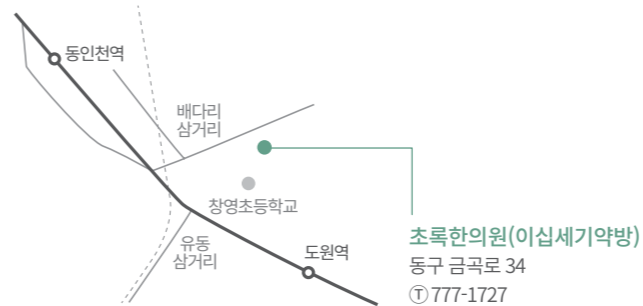


민트색 타일을 정갈하게 쌓아올린 2층 건물은, 세월을 입으면서
일부 덧대고 기웠을 뿐 1959년 모습 그대로다. 당시 배다리에서
보기 드문 현대식 건축이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1966년에 지
은 창고는, 1970년대 후반 일부를 개조해 살림집으로 쓰다 근사
한 정원으로 다시 꾸몄다. 미닫이 거실 문, 나무 창살, 붉은 벽돌
벽, 가문의 역사를 받들고 있는 대들보... 숨을 이을 수 있는 건
모두 살렸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자개장은 방문으로, 달빛 아래
줄린 눈을 부비며 두드리시던 다듬잇돌은 발 디딤대가 됐다.
“난 추억 위를 걸어 다녀요.” 1956년, 이 집에서 태어났다. 검진
실은 부모님께서 쓰시던 안방이고 접수실 쪽은 형제 누이들 방
이었다. 머물수록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고향 배다리에 대한
마음도 각별해만 간다. 어릴 땐, 키가 자라는 만큼 마을도 함께
커갔다. 하지만 머리 희끗해져 돌아와 보니 동네가 나이 들고 초
라해져 서글픈 마음이인다.
“원도심이 허물어지는 순간 역사도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지켜야 해요. 사라진 후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 배다리에선 낡고 오래된 것들이 나름의 이야기를
지킨다. 이십 세기에서 이십일 세기까지, 이곳의 시간 역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다만 시간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다.

약방집 맏아들은 한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 일터이자 가족이 살 부비며 살던 집에
추억을 짓고 기억을 세웠다.

information



초록한의원(이십세기약방)
동구 금곡로 34
☎ 777-1727

초록한의원
이십세기



‘혼자서도 잘해요’ 대세는 1인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이사배, 도티, 뽀빠, 박막례 할머니. 바로 요즘 ‘핫’하다는 크리에이터(1인 방송 제작자를 일컫는 말)들이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장래희망 1순위로 크리에이터가 꼽힐 만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여기, 방송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어놓거나, 문화재에 매료돼 10년간 가족들과 떨어져 1인 방송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다.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그들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연예인 못지않은, 크리에이터

TV라는 플랫폼에만 국한돼 있던 ‘방송’이란 단어가 대중 속으로 성큼 파고들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그리 많지 않아 인터넷 방송은 일종의 ‘취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아프리카TV 또는 ‘다음 티비팟’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크리에이터’가 소위 뜨는 직업으로 급부상했다.

방송인과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점과 틀에 갇혀 있던 TV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매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덕분에 ‘대도서관’이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대통령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초통령’으로 불리는 ‘양띵’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연예인 못지않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방송 수익금 기부하는 ‘럭히구봉TV’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따뜻함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조건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1인 방송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인 셈이죠.” 1만4,000여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기 유튜브 채널 ‘럭히구봉TV’의 크리에이터 구본호(31)씨.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럭히구봉TV’를 통해 먹방과 게임 방송에 이어 비트코인 투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으로 번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해 오고 있다.

그가 기부활동을 결심한 건 지난해 가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소재로 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i Can Speak)’를 본 후였다. 당시 방송으로 번 수익 10만여 원과 구독자들이 후원해 준 1,000~1만원 을 모아 15만원을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기부했다. 그 뒤 독자들이 늘어나고 수익금이 커지기 시작하자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에 쌀 780kg과 라면 20상자를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화수동 ‘민들레국수집’에 쌀 200kg을 전달했다. “방송을 하면서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따뜻함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하기를 권유한다.

누군가에게는 형이,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되면서 진솔하고 담백한 방송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는 ‘럭히구봉TV’의 구본호 크리에이터. ‘사람’을 잇는 콘텐츠와 나눔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더욱 따뜻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80세 1인 방송인 ‘문화재방송 한국’ 김종문 대표

관광 산업과 밀접한 전통문화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문화재방송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전통문화가 미래 산업의 승부처’라고 말했습니다. 관광 산업과 밀접한 전통문화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문화재방송을 멈출 수 없습니다.”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획, 촬영, 편집, 음악, 내레이션까지 1인 5역의 역할을 해내는 ‘문화재방송 한국’(www.tntv.kr)의 김종문(80) 대표.
그는 1967년 전주 KBS에서 기자와 앵커로 일하다 1989년부터 미국·일본에서 3년간 ‘뉴미디어’ 연수를 하면서, 미국의 1인 미디어와 일본의 지역 케이블TV에 매료됐다. 케이블방송까지 40여 년 방송활동을 했던 그는, 퇴직 직후인 2008년 결국

1인 방송인 ‘문화재방송 한국’을 차리게 됐다. 마지막 직장인 NIB남인천방송에서 부사장을 지내면서도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현장을 누볐다. “인천지역 문화재를 소개하는 ‘인천의 숨결’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격주로 20분짜리 영상물을 혼자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문화재에는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데, 세계화와 다문화에 떠밀려 우리 문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2007년 말 NIB남인천방송에서 은퇴하기 전부터 1인 방송을 구상했어요.”
자신을 ‘문화재에 미친 노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문화재 방송국 운영을 위해 가족을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제가 만든 영상은 방송국에 제공하거나 유튜브에 모두 띄워놨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은 돈대(墩臺)가 강화도에 54개 있는데 허물어진 채 방치된 게 많아요. 돈대를 복원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방송을 할 겁니다. 이 일 이요? 재미없으면 못하죠. 몸이 허락하는 한 방송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자 양성 & MCN 실무교육

1인 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 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 TP)의 ICT 진흥센터는 지난해부터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자 양성 및 MCN(Multi Channel Network) 실무교육’을 통해 1인 미디어 제작자를 양성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천 TP와 연수구가 공모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8월, 1인 방송 센터인 ‘인천 MCN 센터’를 시험생산동에 구축·운영하는 등 MCN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나만의 채널 개설’, ‘콘텐츠 기획·제작 및 확산을 위한 SNS 마케팅’ 등 1인 방송 제작자 양성을 위한 이론 및 다양한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1인 영상 제작자의 콘텐츠 유통·광고 및 유치·저작권 관리 등을 관리하는 회사인 MCN 실무 과정은 교육생의 취업 및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된다. 또한 인천 MCN 종합센터에는 기획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 조명, 음향 장비 등 각종 기기를 갖춘 촬영 부스 등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런 시설들은 추후 일반 시민들에게 모두 개방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방송 관련 취업과

1인 방송 창업 등 지난해 수강생들의 취업률은 50% 정도 됩니다.” ICT 진흥센터 한미희 주임은 올해 교육 과정에는 산업인력공단 국가공인 자격증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시험 과정’을 추가해 수강생들의 취업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오는 11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열어 1인 미디어와 관련한 국내외 많은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모여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ICT 진흥센터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인천콘텐츠코리아랩에서 1인 미디어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nfo.
ICT 진흥센터 ☎ 260-0655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722-7900
인천콘텐츠코리아랩 ☎ 876-6424~6



더 푸른 도시숲, 배다리 헌책방거리
더 깊은 시골숲, 헤이온와이 책마을

작은 책집 한 곳이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나아가 도시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영국 헤이온와이 책마을은, 책집 하나가 씨앗이 되어 스러져 가던 광산마을을 새롭게 했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거리는 작은 책집이 거리를 이루어 오래도록
책숨바람을 도시에 베풀었다. 인천을 고요히 키운 밀바탕·밀숲·밀씨인
배다리 헌책방거리가 헤이온와이 책마을처럼 도시와 나라에 새 숨을 불어넣길 기대해 본다.

글 최종규 ‘사전 짓는 책숲집’ 책지기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셔터스톡

BAEDARI SECONDHAND
BOOKSTORE ALLEY

VS

HAY-ON-WYE
TOWN OF BOOKS



배다리 헌책방거리



영국 헤이온와이 책마을

넉넉한 배움벗 책마을

인천 중구와 동구가 맞닿는 자리에 배다리가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책거리가 되었다. 찻길을 사이에 두고 헌책집이 줄줄이 있어 책거리(책방거리·책집거리)라 했다. 부산 보수동은 골목을 품으면서 책집이 모여 있는 책골목이고, 인천 배다리는 길거리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책거리이다.

책거리는 누구한테나 문을 연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책집에 오래 머물며 한 권이라도 더 읽어내려 하고, 주머니가 넉넉하면 마음에 드는 대로 장만해서 느긋하게 읽으려 한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거리는 한국전쟁, 해방, 군사독재, 민주화 물결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책이라는 마음밥을 베푼 터전이다. 자그마한 책집이 웅기종기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작은 책 하나로 생각을 살찌우도록 북돋우는 구실을 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작은 책들을 품은 작은 책집들이 사이 좋게 어우러진 책거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빈주먹에 새로 기운을 모아주고 씩씩하고 다부지도록 이끈 힘이 바로 작은 책 하나를 나누던 작은 책거리에 있을지도 모른다.

새 책과 헌책. 걸모습이 다를 뿐
속에 흐르는 숨결은 같다.





BAEDARI SECONDHAND BOOKSTORE ALLEY

배다리 헌책방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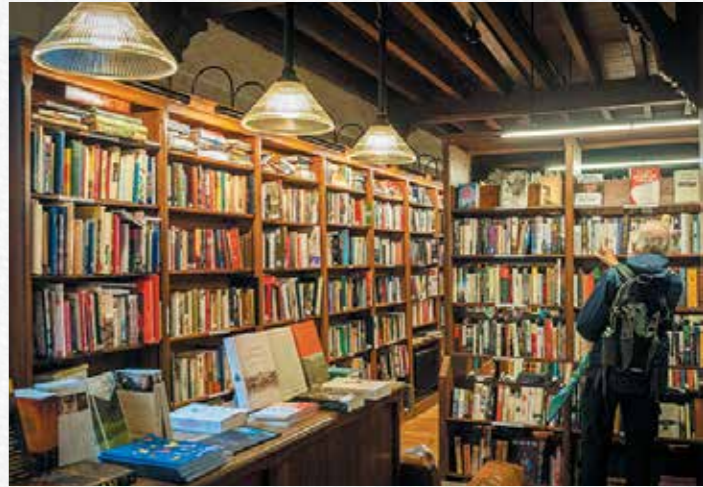
언제부터	한국전쟁 이후
위치	서울에서 전철로 1시간 안팎 + 동인천역에서 걸어서 10분
시설 규모	책집은 여섯 곳 있음
행사	2008년부터 '배다리 문화 축전'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다룬 책	책빛숲, 아벨서점과 배다리 헌책방거리 (숲속여우비, 2014)

V S

HAY-ON-WYE TOWN OF BOOKS

영국 헤이온와이

언제부터	1961년
위치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 버스로 1시간
시설 규모	책집은 스무 곳 남짓 있음
행사	1988년부터 '헤이 페스티벌'
헤이온와이 책마을을 다룬 책	헌책방마을 헤이온와이 (씨앗을뿌리는사람, 2003)



광산터 빛줄기 책마을

영국 헤이온와이는 매우 작은 시골이자 조용히 스러져 가던 광산 마을이었다. 1961년에 리처드 부스라는 젊은이가 마을 한편에 헌책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작은 헌책집은 어느덧 먼 곳에서도 기차로 두 시간, 버스로 다시 한 시간을 달려서 찾아오도록 하는 책마을로 거듭난다. 관광이나 예술은 없지만, 작고 낡은 책에서 오래오래 읽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낸 젊은 일꾼은, 바로 작은 힘을 바라보았고 헤아렸으며 즐겁게 나누는 길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도 작은 책에 깃든 힘을 천천히 깨달아 이곳이 책마을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았고, 오늘날에는 해마다 100만 권에 이르는 책을 사고파는 놀라운 책마을이 되었다.

그런데 영국 헤이온와이는, 책 손님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가게삿이 뿔박질해 마흔 군데나 되던 책집이 스무 군데 남짓으로 줄었다. 리처드 부스는 '헤이온와이 독립선언'도 하고 1988년부터는 책마을 잔치도 연단다. 인천 배다리는 어떨까? 인천시는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가로지르는 산업도로를 밀어붙이려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배다리 같은 책거리를 새롭게 살리려는 물결이 일고 있지만, 인천은 거꾸로 가려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런 거꾸로질에 힘입어 젊은 일꾼이 배다리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이제 배다리 헌책방거리는 '배다리 책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헤이온와이 풍경



인천을 키운 작은 씨앗

우리는 크기나 부피나 숫자로 따지는 버릇이 들고 말았다. 책을 1만 권이나 10만 권쯤 읽어야 대단할까? 책집 한 곳에 100만 권쯤 되는 책을 품어야 대단할까? 책집 숫자가 쉰이나 백쯤은 되어야 할까? 인천 배다리는 크기·부피·숫자에 가려진 이슬 같은 마음을 읽자고 손을 내미는 작은 책마을이다. 그렇다. 작은 책마을이다. 작은 책길이 있고, 작은 시 다락방이 있다. 작은 찻집과 작은 전시관, 작은 사랑방이 있다.

영국 헤이온와이는 밖으로 널리 알리고 퍼지는 책마을이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거리는 골목으로 마을로 조용히 스미면서 작은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스스로 일어서는 책마을이다. 두 곳은 저마다의 책빛으로 아름답다. 그중 배다리 헌책방거리는 '작은 책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찾고 만나고 누리는 책숲'의 터전이지 싶다.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지키는 '아벨서점'의 곽현숙 선생. 사람을 기다리고 그들의 가슴을 채우는 게, 책방지기의 행복이라고 그는 말한다.



곰곰이 보면 배다리는 인천을 고요히 키우는 밀바탕·밀숨·밀씨이다. 배다리 헌책방거리가 있어 인천 사람은 마음밭에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쉴 수 있을 테니까. 책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길을 사뿐사뿐 거닐 수 있고, 책집을 들르고서 다시 골목마을을 찬찬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책마을 배다리를 품은 인천이라는 도시는 상냥하고 예쁘장하다.



‘ON-AIR’는
나의 에너지

조현정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염천(炎天)이었다. 문밖으로 나서는 순간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사우나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방송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끝내고 나오는 사진가는 뭔가 마뜩잖은 표정이었다. 시원하고 편하기는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기분이었다. “안되겠어요. 이따 방송 끝나고 신포시장에서 봐요.” 그날 저녁 늦게 사진가의 전화를 받았다. 시장 옥상에 올라가 답동성당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맘에 든단다.

조현정(33) 씨는 그 답동성당 아래, 지금은 문을 닫은 이근수산부인과에서 텃줄을 잘랐다. 주안복초, 선화여중, 박문여고를 거친 후 인하대에서 일본어와 물류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외국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물류업체에서 일했다. ‘이게 아닌데...’ 스무일곱 살에 방송 아카데미 문을 두드렸다. 아나운서로는 너무 늦은 나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중·고교 방송부 시절부터 들어왔던 ‘마이크 체질’이란 말 하나 믿고 늦깎이 도전을 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들어왔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은 후 자리를 옮겨 남구 학익동에 있는 TBN경인교통방송에서 교통 캐스터와 취재 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일 자체가 즐거웠다. 명절 때마다 기꺼이 출동 방송을 도맡아했다. 이후 매일 정오에 하는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고 지금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교통·날씨 정보, 지역 소식 등을 시시각각 전하는 ‘TBN경인매거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다. 경인교통방송 외에 다른 방송국에서 이른바 ‘몇 탕’을 더 켜다. KBS라디오에서 토요일 오후 ‘주말생방송정보쇼’의 시사 브리핑을, CBS라디오에서 매일 새벽 6시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의 꼭지 하나를 맡고 있다. 새벽 방송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한밤중인 새벽 3시 30분 일어나자마자 밤사이 뉴스를 체크하며 그날 방송할 원고를 만든다. ‘생얼’에 모자를 눌러쓰고 오전 4시 제물포 집을 나서 서울 목동으로 향한다. 한겨울에는 차 안이라도 핫팩을 몇 개씩 붙여야 겨우 몸이 녹는다. 집을 나설 때는 늘 젖은 솜뭉치이지만 ‘ON-AIR’ 사인이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두 눈은 초롱초롱, 목소리는 또랑또랑 모드로 급전환한다. 새벽 마이크를 통해 그날 하루 종일 쓸 에너지를 얻는다.

모든 일상은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져 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생선회를 좋아하지만 주중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혹시 탈이 나 방송에 지장을 줄까봐 자제한다. 한번은 부친이 생굴을 사온 적이 있어 온 식구가 둘러앉았다. 쳐다보지도 않는 딸에게 한 점만이라도 먹으라고 강권했지만 그는 매몰차게 입에 대지도 않았다. 다음 날 식구들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번갈아가며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아찔한 순간이다.

특성상 교통방송 진행자는 ‘연조’가 좀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 주 청취자인 운전기사들과 말이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이에 비해 인천의 ‘과거’를 많이 꿰차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고장 탐구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등 유난히 지역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 덕분에 생방송 중 들어오는 청취자의 다양한 문자에 대해 ‘척’하면 ‘척’이다. 일주일 내내 경인고속도로를 오가며 이 방송국 저 방송국을 누비고 있지만 그는 경인교통방송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인천 아나운서’이다.



CULTURECALENDAR

09

01

어린이 뮤지컬
‘헤이지니&럭키강이’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9월 2일까지 공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1566-6551

2018 클래식 시리즈 4 -
성민제&조윤성 듀오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2만5,000원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가
☎ 1588-2341

2018 스테이지 온 스크린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8시
무료
☎ 420-2736

2018 우리가족 -
토요일N클래식 시리즈III
‘해천추범·귀머거리들의 만찬회’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6,000원
☎ 505-5995

02

2018 팝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무료
☎ 873-7772

05

2018 커피콘서트VII
타악 앙상블 ‘바람의숲’
힐링 퍼커션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018 스테이지 온 스크린
로시니의 오페라
‘신데렐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36

06

2018 제5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30분
무료
☎ 437-8501

2018 스테이지 온 스크린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36

07

황금토끼-금요일예술무대
시립합창단
‘가곡 이야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420-2742

07

2018 스테이지 온 스크린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8시
무료
☎ 420-2736

국악계의 쇼팽 박경훈의
‘피아노 풍류(風流)’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08

제3회 문학산 음악회

문학산 정상
오후 7시
무료
☎ 440-4476



기후변화 공감 토크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440-4493

2018 스테이지 온 스크린
태양의 서커스
‘신비의 세계’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8시
무료
☎ 420-2736

13

인천시립극단
청소년 극 + 극장 밖 연극
‘청소년 극1. 날개, 돌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9월 15일까지 공연
13일, 14일/ 오후 2시
15일/ 오후 3시
전석 1만원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청소년 극 + 극장 밖 연극
‘극장 밖 연극1. 광장줍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9월 14일까지 공연
오후 3시 30분
무료
☎ 438-7775

14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76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황금토끼-금요일예술무대
인천시립무용단
‘우리 춤의 향연4’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15

하모닉스심포니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열 번째 선물’
오페라 갈라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010-4448-3768

15

황금토끼-토요일예술무대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가라사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16

인하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무료
☎ 860-8505

18

인천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인천합창대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9월 20일까지 공연
오후 7시 30분
무료
☎ 438-7773

19

전통인형극
‘꼭두, 80일간의 세계일주’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20

김수희 콘서트

인천 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선착순 무료 www.ilec.go.kr에서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접수
☎ 899-1517

20

인천시립극단
청소년 극 + 극장 밖 연극
‘청소년 극2. 외톨이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9월 22일까지 공연
20일, 21일/ 오후 2시
22일/ 오후 3시
전석 1만원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청소년 극 + 극장 밖 연극
‘극장 밖 연극2. 마사지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9월 21일까지 공연
오후 4시
무료
☎ 438-7775



21

황금토끼-금요일예술무대
‘유리엘이 펼치는
아름다운 밸리 스토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22

황금토끼-토요일예술무대
‘댄싱 위드 더 오페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26

2018 청어람 한가위
판소리 다섯 바탕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2만원
☎ 209-9921

28

황금토끼-금요일예술무대
‘코리안브레스 : 국악,
세상의 음악을 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742

29

인천시립무용단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원
☎ 1588-2341

황금토끼-토요일예술무대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호락호락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420-2051

2018 주현미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9만9,000원, S석 8만8,000원,
A석 7만7,000원
☎ 1544-7543



30

인음아카데미유스오케스트라
제31회 정기연주회
‘가을을 여는 클래식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초대
☎ 888-0808

이달의 展

2018 인천현대수채화제전

8월 31일~9월 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 전시실

Club inner shot #7

9월 1일~10일
갤러리 다솜

인천 개항장 미술축제

9월 1일~14일
갤러리 지오

허준, 자연과 인간의 공존

9월 1일~10일
갤러리 나무

인천아트페스티벌 ‘일상의 풍경’ 그리다

9월 7일~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 전시실

제26회 인천가톨릭미술가회전

9월 7일~1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김용경, 해(海) 봄

9월 13일~20일
갤러리 다솜

평화를 소재로 한 회화 및 미술 작품전

9월 14일~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

2018 한·중(위해시)미술·사진국제교류전

9월 14일~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 전시실

남동구 사진가 연합사진전

9월 14일~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피웅전

9월 15일~21일
갤러리 지오

2018 인천미술한마당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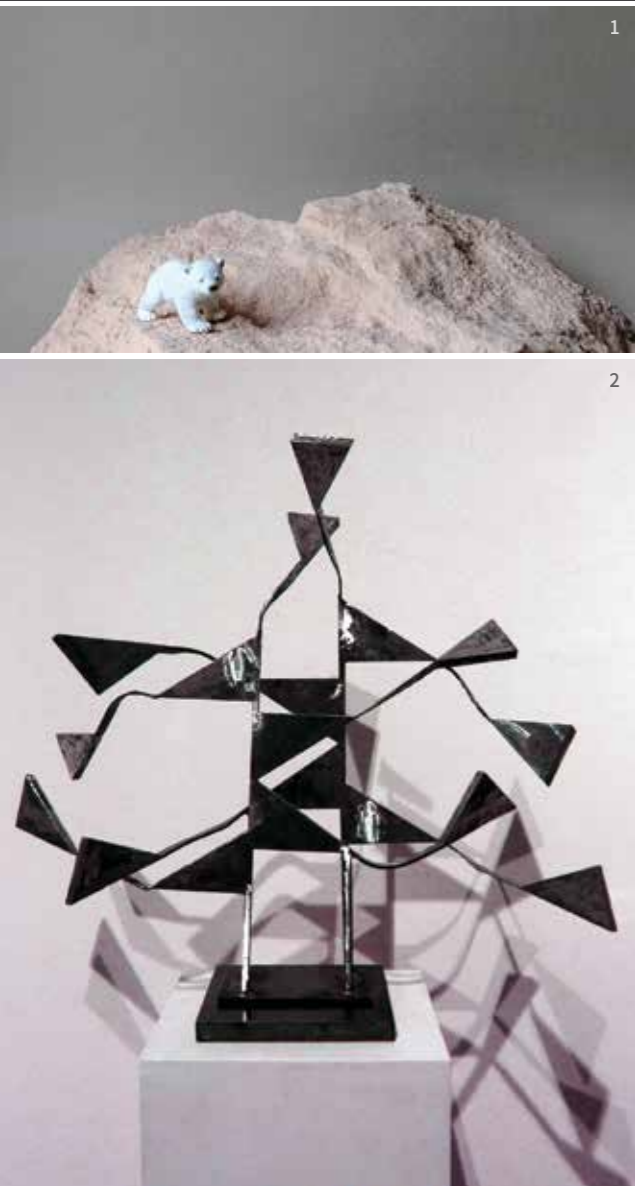
‘인천의 힘전’
9월 21일~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 전시실

2018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미술원석 발굴전’ 1부
9월 29일~10월 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 전시실

강상중 개인전

9월 29일~10월 5일
갤러리 지오



인천 조각 35년, 그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인천의 예술은 인천의 근대사만큼 역동적이다. 들고난 예술인들의 숫자와 활동이 도시 개발의 삽질에 버금간다. 특히 인천 조각계의 족적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의 자취를 담아둔 아카이브는 없다. 공공기관의 관심이 시급하다.

글 이재연 미술평론가,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한 지역의 예술계 인명과 다양한 자료들이 축적된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천 지역의 경우도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자료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항 이래 인천은 격동의 역사 그 중심에 있었으며, 도시의 성장이 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하게 이뤄졌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직할시, 광역시로 재편되는 과정은 인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시기의 기록 관리가 오히려 개항 시대보다 미흡하다. 예술가들의 경우 유입 연고자나 거주자가 출신자보다 월등히 많아지면서, ‘예술계’ 자체가 항상 안정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유동적인 상황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데이터로 집계된 인천 연고 예술인들의 숫자는 언제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인천의 예술가가 1,0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그 배로 추산해야 옳을 것이다. 아카이브를 축적하고 관리할 구심점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분명한 것은 한 지역의 ‘~계’라는 것은 거주 기준이 아니라 활동에 근거해서 기술되어야 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거주 개념(어쩌면 출신까지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술작품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가보다는 어디에서 발표되고 향유되는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인천 조각계’라는 개념도 결국은 활동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조각의 경우 작업 인프라에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서, 제작과 발표가 장소적으로 일치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인천 조각계의 출발점도 구체적인 활동을 근거로 말해야 할 것이다. 인천 조각은 다른 장르에 비해 지역 내 활동이 왕성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조각의 경우는 공공미술 시장이 어느 도시에도 분포되어 있어

1.이찬우 나들이 / 경석고+수지 / 40×26×17cm / 2018 | 2.석세란 변주(Variation) / Steel / 62×25×59(h)cm / 2018 | 3.김기민 WITH / Frp, led, stainless steel, glass, gravel / 68×54×45cm / 2017 | 4.최성철 Apple of Pearls / stainless steel / 90×90×108(h)cm, 80×50×155(h)cm, 83×48×176(h)cm / 2016 | 5.김원근 (왼쪽) 앵그리 북서 / 레진 에폭시, 아크릴 채색 / 30×19×47cm / 2018, (오른쪽) 토머스맨 / 레진 에폭시, 아크릴 채색 / 28×20×45cm / 2018

굳이 서울로 몰려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은 유난히 조각이 강세인 도시이다. 좋은 조각가들이 배출된 데는 훌륭한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조각가들에게 요구되는 강렬한 에너지와 진취적인 미의식이 한몫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조각 도시 인천’의 역사를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인천조각회’이다. ‘인천조각회’는 1984년 결성되어 창립전을 가졌다. ‘인천조각 15인전’(1984년 12월 23일~27일, 수공공원 문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전시가 그 단초가 된 것이다. 백현옥, 고정수, 정현, 노용래, 김창곤, 오상일, 이찬우, 오정숙, 김신옥, 이창림, 김길남(무순) 등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작가들로 포진해 있었다. 이들의 면면만으로도 ‘조각 인천’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으며, 그 위상을 의심하는 이가 없었다. 그림과 달리 조각은 팀워크와 협업이 중시되는 분야로서 모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는 ‘인천현대조형작가협회’가 결성된 바 있다. 차세대의 비전과 조각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인천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종 신공항, 송도 및 청라 신도시 등의 굵직한 개발붐을 타고 공공미술의 수요가 급증한 바 있다. 한동안 과열 경쟁과 부조리 관행, 자기 표절 등의 모습이 노출되면서 여론의 질타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현재는 인천 내 원도심 재생 사업들이 대대로 펼쳐지면서, 이에 참여하는 젊은 조각가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관심도 공동체나 장소 특정적 커뮤니티 아트로 전환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변화된 양상을 한눈에 보여준 전시가 인천조각가협회 35회전(2018년 7월 28일~8월 12일,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이다. 이번 전시는 개항장 인천, 플랫폼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들(석세란, 김경민, 노준, 김병진, 김연, 이성옥, 김대성, 김원근, 이후장, 호혜란, 박찬용, 윤진섭, 강민규, 민성호 등)의 작품이 초대되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수의 해외 작가들 작품도 초대되어 동질성과 차이점을 동일선상에서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 구성이 이채롭다. 구스타보 벨레즈(Gustavo Velez, 콜롬비아), 코살 쿠마르(Kosal Kumar, 인도), 크리스나 무라리(Krishna Murari, 인도), 쿵츠밍(Kung Tzu-Min, 대만), 차밍창(Chia-Ming Chang, 대만), 히로마사 아베(Hiromasa Abe, 이하 일본), 히데도시 이케다(Hidetoshi Ikeda, 혼다 요시히사(Honda Ydshihisa), 코지 히라토(Koji Hirato), 노리코 시바타(Noriko Shibata), 신지 기쿠치(Shinji Kikuchi), 다카시 유카와(Takashi Yukawa) 등이 그들이다. 석세란, 김대성, 김연, 김원근, 최성철, 윤진섭, 호혜란, 김기민 등의 작품들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인천 문화에서 비중 있는 자료들이 일정하게 기록, 보존,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작가들에게서도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 예술 자료들은 공공기관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35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다. 인천 조각의 역사는 훨씬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35년의 역사도 벽찬데 100년 이상의 역사는 어찌할 것인가. 아카이브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최초’ 스포츠 도시서 ‘최고’ 스포츠 대회를

인천은 수많은 운동 종목이 처음으로 들어와 소개됐고 성장·발전한 곳이다.
대한민국 체육의 뿌리, 인천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정상급 검도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와 미국 여자프로
골프협회(LPGA) 톱랭커들이 대거 참가하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그것이다.
올가을, 인천에서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생생히 느껴보자.

golf



오직 검 하나로, 검도인들의 올림픽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WKC)는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검도 대회다. 1970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미국, 영국, 브라질,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88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해에 치른 제7회 대회 이후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뜻 깊은 대회이기도 하다. 9월 14일부터 3일간 열리는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60여 개국, 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남자부 개인전, 여자부 개인전, 남녀 단체전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우리나라는 남녀 각 10명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이번 대회에 나간다. 앞서 대학, 실업팀 등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형식으로 국가 대표 선수를 선발했다. 남자의 경우 27차, 여자는 16차에 걸친 17WKC 우수선수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다음 훈련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경기력을 유지한 남녀 선수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대회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주요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남동구의 남동체육관에서 치러지며, 좌석은 테이블이 있는 지정석부터 장애인석까지 총 7,000석 이상이 준비된다. 검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정도로 그 전통이 깊다. 이번 대회는 검도의 전통과 예절뿐만 아니라 최고의 검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및 예매 : ticket.interpark.com
일시 : 9월 14일~16일
장소 : 인천 남동체육관
홈페이지 : www.17wkc.kr
티켓 : S석 5만원, A1석 3만원, A2석 2만원, B석 1만원, C석 5,000원, 장애인석 1만5,000원

kendo

8개 국가, 단 하나의 크라운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를 정복할 때 선구자 소임을 해낸 이가 바로 박세리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박세리가 명예 조직위원장을 맡은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오는 10월 2일 개막한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초의 골프 국가 대항전이다. 2014년 첫 대회 이후 미국에서 열리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개최된다. 총상금은 160만 달러. 룰렉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순위에 따라 선정된 8개국의 대표 선수 4명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드라마틱한 매치 플레이를 펼치며, 최고의 골프 국가로 선정된 우승팀에게 단 하나의 ‘크라운’이 주어진다. 올해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태국, 스웨덴, 대만이다. 우리나라는 김인경부터 박성현, 유소연, 전인지까지 메이저 챔피언을 내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톱시드’로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1회 우승국인 스페인과 2회 우승국 미국에 이어 왕관을 획득할 수 있을지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4차 티켓이 오픈된 상태로 현장 구매가보다 1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문의 및 예매 : ticket.interpark.com
일시 : 10월 2일~7일
장소 : 송도국제도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홈페이지 : www.ulcrown2018.com
티켓 : 전일권 27만원, 연습 라운드 2만원, 1·2라운드 5만원, 3라운드 10만원, 4라운드 12만원

NEWS BRIEF

첫 추경 9조6,711억원 편성...5대 민생복지 주력



우리 시가 지난 8월 16일 일자리와 원도심, 교통 정책에 중점을 둔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전체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7,375억원(8.26%) 늘어난 9조6,711억원이다. 시는 일자리복지·취약계층복지·교통복지·균형발전복지·시민안전복지 등 ‘5대 민생복지’에 역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청년·노인 일자리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복지사업에는 291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복지를 위해 229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증차,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교통망 확충 관련 사업비는 620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730억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설치와 119안전체험관 건립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예산 127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예산담당관실 ☎440-2252

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첫 시행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적용한다. 시는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6만2,000여 명에게 주민세 1만원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 납부 기간은 지난 8월 16일~31일이었다. 문의 : 시 세정담당관실 ☎440-1623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광장놀이터’ 개장



날씨, 미세먼지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시 제1호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광장놀이터’가 지난 8월 31일 여성의광장에 개장했다. 여성의광장 1층 도서정보실과 강의실 220m²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놀이터로 집보드·모션스캔 등 첨단 체험기구 8종을 갖췄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며 동반 보호자 입장료는 평일 2,000원, 주말 3,000원이다.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여성의광장 홈페이지(wp.incheon.go.kr)에서 사전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 여성의광장 ☎440-4273

‘빈집정보시스템’ 전역 확대

우리 시가 구도심에 있는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매수·매도인까지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부터 이를 활용해 구도심 지역의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빈집정보시스템은 전기와 상수도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빈집 추정 대상을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 빈집 현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빈집 위치는 물론이고 빈집 등급, 공시가격 정보 등도 볼 수 있다. 방치된 주택을 구입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주민 간 중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주거환경과 ☎440-3489

10개 학교에 무상 우유급식 시범 추진



우리 시는 9월부터 10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시범 시행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3,400만원으로 올해 2학기 중 80일간 약 1,000명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교육청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12월 중 만족도 조사를 거쳐 내년 부터 무상 우유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440-4392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천일염 체험장 열어



소래생태공원에 천일염 체험 공간이 개장했다. 천일염 체험장은 소래생태공원에서 직접 생산

한 깨끗한 천일염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성인과 유아 이용 공간을 분리해 연령층에 맞는 체험이 가능하다. 천일염을 이용한 수족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유·소아를 위한 ‘천일염 놀이터’도 있다. 이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 등을 위해 휴장한다. 문의 : 인천대공원사업소 ☎440-5874, 7082

주거지 재생 시범사업지로 남촌동 선정

우리 시는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 재생의 모델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남동구 남촌동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21일 남촌동에서 70여 명의 주민과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행복채움 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 재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는 남촌동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리적 성격상 사업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주민이 마을 계획에 참여하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공동체 거점 공간도 빈집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문의 : 시 주거환경과 ☎440-3477

국가산단 주차난 해소 위해 첫 설치자금 지원

우리 시가 국가산업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국가산업단지에 자체 주차장을 설치·확대하려는 제조업체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개사가 신청해 1개사가 1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개사는 공장 신축과 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금리 2.8%(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최대한도는 10억원이지만,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440-4253

폭염 피해 소상공인에 100억원 긴급 지원

우리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폭염 피해 업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총 100억원 규모의 이번 특례보증서 발급 대상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주민 참여 관광상품’ 개발



강화 별밤거리



© 사진: 박정원

우리 시는 지역의 전통 설화와 특색 있는 체험활동 등 관광 주제를 시민이 직접 선정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공방조합을 중심으로 ‘인천항 개항장’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차이나타운’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구는 지역 전통 설화인 ‘괭이부리 호랑이’를 바탕으로 캐릭터 개발과 체험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다. 또 연수구는 백제 시절 중국과 연결된 출항지인 ‘능허대’를 소재로 뮤지컬을 만들고,

서구는 3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고택을 중심으로 한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읍 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과 농산물직거래장, 특산물판매장을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관광 콘텐츠를 공모해 5개 팀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 팀들을 지도해 올 연말까지 관광상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43

버스 도착 정보 고도화 사업 착수

우리 시는 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시내버스운송조합·인천스마트카드와 함께 버스운행정보·요금징수시스템·디지털운행기록 등 3개 기능을 묶어 통합 단말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버스정보안내 홈페이지를 개편해 버스 내 승객 수를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버스 혼잡 정보, 막차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막차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버스정보안내기의 시인성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화면 표출부를 기존 LCD형에서 LED형 모듈로 우선 교체한다.

문의 : 시 교통정보운영과 ☎ 440-1762



인천시티투어, 야경투어 운행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시티투어 2층 버스 야경투어를 운영한다. 야경투어 버스는 오는 10월 27일 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9시 운행한다. 버스는 송도센트럴파크·G타워·송도컨벤시아·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파라다이스시티 등 송도와 영종도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한다. 요금은 성인 1만원, 어린이·장애인 6,000원이다.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www.incheoncitytour.com)를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인천시티투어 ☎ 899-7300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우리 시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건강 정책을 수립한다.

시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시민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마련된 254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수립에 활용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건강증진과 ☎ 440-2723

세계 최대 프로 e-스포츠 ‘롤드컵 결승전’ 인천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전’이 오는 11월 3일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롤드컵을 능가하는 최고의 빅 이벤트로 꼽혀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14년에 이어 4년 만이다. 전

세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24개 프로팀 144명의 선수를 포함한 약 3만 명(외국인 3,000명)이 10월 한 달간 지방도시 예선과 토너먼트를 거친 후, 오는 11월 3일 대망의 최종 결승전을 인천에서 치르게 된다.

이번 롤드컵 결승전 개최로 국내외 3만 명 e-스포츠 관계자가 인천을 찾고, 결승전은 전 세계 e-스포츠 채널을 통해 145개국에 방송될 예정에 따라 e-스포츠 메카로서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 440-152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접수

우리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인천 주거급여 지급 상한 금액은 1인 18만7,000원, 2인 21만원, 3인 25만4,000원, 4인 29만7,000원, 5인 30만8,000원, 6인 36만4,000원 등이다.

문의 : 시 건축계획과 ☎ 440-4744

인천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 발족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정일섭 인하대 교수, 최돈묵 가천대 교수, 이우상 변호사, 신재명 손해사정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소방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입은 시

인천해양경찰서 옛 능허대중학교 부지로 이전

인천해양경찰서가 옛 능허대중학교 부지로 옮겨 지난 8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해양경찰청이 오는 11월 다시 인천으로 옮겨오면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인천해양경찰서가 이전을 하게 된 것. 인천해양경찰서 주소는 연수구 옥곡로 69이며,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다.

문의 : 인천해양경찰서 ☎ 650-2000



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보상금 지급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고 국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문의 : 인천소방본부 ☎ 870-3010

IFEZ NEWS

IFEZ 스마트시티 기술력 중국에 홍보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 1회 중국 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만의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구축 노하우와 기술력을 소개했다. 또한 IFEZ 전 지역에 대한 3차원 모델링 자료를 바탕으로 2D·3D·항공·VR 모습을 열람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와 GIS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많은 행정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해 정보를 공유하는 인천의 스마트 GIS 시스템을 알렸다. 한편 국제스마트산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 간 융합을 통해 중국 내 일류 스마트산업기지와 디지털 경제 선행 시범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
송도에 개소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가 지난 8월 17일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대부분 서울에 설치되는 주한 외국 무역대표부가 인천에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도국제도시 포스코타워-송도 29층에 개설된 무역대표부에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지방 공무원 7명이 상주해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본국에서 요청하는 무역·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7곳에 경제자유구역역을 지정했으며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개발·투자유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종·청라 숙원
제3연륙교 건설 본격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21일 송도국제도시 GT타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설계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연륙교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까지 4.66km(해상 3.64km·육상 1.02km) 길이에 왕복 6차로 차도·자전거도로·보도로 건설될 예정이다. 실시설계는 2020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시민 숙원인 제3연륙교 개통을 서두르기 위해 특수공법·신기술 도입, 공구 분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2020년 착공·2025년 개통 계획을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높이 448m 청라시티타워
이달 첫 삽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로 잠정 중단된 청라국제도시의 초고층 건물 ‘시티타워’ 사업이 9월부터 본격화된다. 시티타워는 청라 중앙호수공원 일원 3만3,058㎡ 부지에 짓게 될 448m 높이의 관광형 복합문화시설이다. 2007년 추진된 이후 10년 이상 멈춰 있던 숙원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들어오면서 인·허가 과정을 통과했다. 지난 6월 착공신고를 제출했으나 7호선이 청라로 연장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부지 내에 7호선 ‘청라시티타워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22일 LH, (주)보성산업 등과 회의를 열고 ‘대심도 통과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기존 깊이 20m에서 61m로 더 깊이 파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건물과 지하철이 문제없이 지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되면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634m), 중국 광저우의 캔턴타워(610m)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 타워가 된다.

IMAGE NEWS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시민이 시장인 도시

‘불통’이 아닌 ‘소통’을, ‘독단’이 아닌 ‘협치’를
- 지난 7월 2일 박남춘 시장 취임사 중

#민선 7기 인천시정부는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도록
#소통과 협치를 #시장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01



소통과 협치를 위한 환경 조성

-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협치위원회에 최고 권한 부여
- 일자리위원회, 서해평화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시민참여형 열린위원회 신설
- 마을 협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
-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충 등

#소통과 협치를 위한 빠르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과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인천의 과제들

- 현장수요 중심의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
-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자치단체와 정책협력 강화
- 남북교류 활성화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관련 단체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

#인천시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들을
#시민과 시민단체, 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 진행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공유합니다.

03



인천형 소통·협치로
인천, 새로운 시작!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 에이브러햄 링컨

#당시 분열된 미국을 #협치를 통해 끌어안은 지도자
#링컨. 우리 시도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04

COUNCIL NEWS

기타큐슈 청소년 영어교류 대표단, 시의회 방문

일본 기타큐슈시 중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영어 교류 대표단이 기타큐슈시 아시아교류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8월 24일 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시의회 예방을 시작으로, 강화여중 학생들



과 영어교류 프로그램인 ‘인천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경제자유구역청 내 IFEZ 홍보관과 UN ISDR(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을 방문했다. 이용범 의장은 대표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양 도시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하려면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시와 기타큐슈시는 1988년 12월 자매 도시 협정을 맺고, 기타큐슈시 탄생 기념 축제인 ‘왓쇼이 백만 여름 축제’와 ‘인천시민의 날’에 축하사절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전통적인 국제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재난현장 방문, 시민안전 점검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에서 발생한 재난현장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는 등 시민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8월 22일 남동공단 세일전자 현장을 방문해 화재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시의원들은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에 철저한 행정지도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날 화재 현장 방문 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제19호 태풍 ‘솔릭’의 대응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시민 참여 환경협치모델 구축 간담회 개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시의회에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시민 참여 환경협치모델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 분야 현안사항 해결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치모델 구축 방안과 적절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환경 기초 시설인 광역폐기물소각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문제와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협치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의회저널’은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7호선 석남 연장 건설현장 방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시 도 시철도건설본부장, 시설부장, 공사감독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동명기술공단 감리 단장으로부터 진행 사항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이후 부평구 산곡동의 제1

공구, 서구 석남동의 제2공구 지하 공사 현장을 찾아 꼼꼼히 답사하면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들은 “안전문제가 국가적 화두인 만큼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7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의정역량 강화 ‘직무연찬회’ 개최

시의회는 지난 8월 2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의원들이 알아야 할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 결산 심사 검토 등에 관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청 일반 현황 및 예산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도 이어졌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직무연찬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며

“제8대 의회 임기 동안 자치분권을 통해 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인사 간담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확대 토론회 개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자치와공동체는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16년 10억원(19건), 2017년 11억원(23건), 올해 14억원(20건)을 반영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예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180억원으로 잡고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따른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창3초교 정상 개교 차질에 따른 현장점검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8월 20일 공사 지연으로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남동구 서창3초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서창3초교는 계약업체의 채권 (가)압류 등에 따라 노무비와 자재대금,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상태로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상 개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안전 시공을 강조하며, “투입 인원과 자재 확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8월 29일(수)~9월 18일(화)

제1차 본회의

- 8월 29일(수)

인천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제2차~제4차 본회의

- 8월 30일(목)~9월 3일(월)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 9월 4일(화)~9월 10일(월)

2017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월 11일(화)~12일(수)

인천시 결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9월 13일(목)~14일(금)

인천교육청 결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제5차 본회의

- 9월 18일(화)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안, 조례안 처리 등

※ 인천시의회회의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tv.icouncil.go.kr)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우리 시는 오는 10월 8일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시청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론 주제 :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일시 : 10월 8일 오후 1시 40분~5시

장소 : 인천시청 운동장



<참가자 모집>	신청 방법
모집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 www.incheon.go.kr → 참여 → 이벤트
모집 인원: 500명	㉠ 440-2199, 440-2181~4, 440-2189 / ㉣ 032-440-8722 /
모집 기간: 9월 20일까지 선착순	㉢ muspia1234@korea.kr

열린광장 컨셉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리 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진입과 소통을 위해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시켜 열린광장을 조성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 : 8월 29일~9월 21일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내용 : 열린광장이 담아야 하는 의미, 형태, 들어갔으면 하는 요소 등

응모 방식 : 자유 형식(글, 그림,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응모)

응모 방법 : 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참여 → 공모전) 접수 혹은 다운로드한 서식 작성 후
이메일(㉢ sukhwan1@korea.kr) 접수

시상 내역 : 우수작 10명(30만원 상당 상품권), 참여상 30명(5,000원 상당 커피 쿠폰)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3085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영종하늘도서관은 ‘달달한 고전산책’이라는 주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전읽기’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역본 읽기’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함께 고전을 읽고, 함께 즐기자! 동고동락

기간 : ~11월 6일

대상 : 성인 25명

프로그램 구성 : 강좌 6회, 특강 4회

70일간의 완역본 여행

기간 : ~11월 6일

대상 : 초등학생 4~6학년 25명

프로그램 구성 : 강좌 7회, 특강 3회

문의 및 접수 : 영종하늘도서관 ㉠ 746-9137, ㉡ www.michuhollib.go.kr



인천유나이티드 홈경기 일정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한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경기 일정을 안내합니다.

기간

9월 2일 오후 6시 K리그 27라운드 VS 울산 / 9월 15일 오후 4시 K리그 28라운드 VS 수원 /

9월 30일 오후 4시 K리그 31라운드 VS 경남

장소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홈페이지 : ㉡ www.incheonutd.com

문의 : 인천유나이티드 ㉠ 880-5500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 내용 :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수렴 기간 : ~11월 19일

수렴 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제출

홈페이지 : ㉡ www.icouncil.go.kr

문의 : 시의회 사무처 ㉠ 440-6142

치매관리 학술행사 개최

시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일시 : 9월 18일 오후 2시~5시 30분

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장소 :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11층 가천홀

신청 : 홈페이지(㉡ incheon.nid.or.kr)에서 신청

문의 : 시 광역치매센터 ㉠ 472-2028

제4기 여성복지관 수강생 모집

인천여성복지관에서 전문·실용창업과정과 문화아카데미·특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남성 포함)

과목 : 미용, 양재, 도배, 요리, 제빵, 외국어, 댄스 등 101개 강좌

접수 기간

전문·실용창업과정 : 9월 18일~10월 15일

문화아카데미·특강 : 9월 19일~10월 15일

접수 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교육비 납부자에 한함)

교육 기간 : 10월 9일~12월 22일

홈페이지 : ㉡ women-center.incheon.go.kr

문의 : 인천여성복지관 교육팀 ㉠ 440-6540

국가자격증 유아숲지도사 교육생 모집

한국숲교육협회에서는 유아들과 숲에서 미래를 꿈꿀
유아숲지도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 40명(선착순)

개강 : 9월 5일(수·금·토요일 수업)

이수 시간 : 총 220시간(강의 190시간 + 교육실습 30시간)

교육비 : 180만원(3회 분할 납부 가능, 교재비,

상해보험 가입비, 실습비 포함)

강의 장소 : (사)한국숲교육협회 강의실

접수 방법 : 메일 접수(㉢ wald-edu@hanmail.net)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한국숲교육협회 ㉠ 439-8880

보안 취약 기업에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보안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게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을 상시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상 : 영세·중·소기업, 창업기업

홈페이지 : ㉡ ibitp.or.kr

문의 :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무국 ㉠ 070-4835-2782~4



고용복지센터 내 청년센터 운영 안내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자율 활동과 편리한 이용을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장소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2층	신청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년mate’ 친구 추가 후
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누구나	1대1 상담으로 신청
시설 내용 : 스튜디오, 소모임 토론, 취업 프로그램 등	문의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460-4832, 4859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 울릉도 탐방대 모집

(사)대한민국독도사랑세계연대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 울릉도 탐방대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식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시 : 9월 28일~30일 2박 3일
장소 : 독도, 울릉도 일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50명 선착순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양경찰청, 울릉군, KBS, MBC, SBS 외
문의 : (사)대한민국독도사랑세계연대 ☎ 010-8824-0404

제22회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경연대회

제22회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경연대회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일시 : 10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갈매기홀
접수 기간 : 8월 14일~9월 10일
참가 자격 : 전국 청소년 밴드, 보컬, 랩, 댄스 그룹 9세~24세
접수 방법 :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방문, 메일, 우편, 팩스 접수
문의 :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사무국
☎ 873-8164 / ☎ yeonyea.modoo.at /
✉ artinyeonyea@naver.com / ☎ 872-5551

치매극복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시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2018 치매극복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 : 9월 21일 오후 2시~4시
장소 :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신청 : 홈페이지☎ incheon.nid.or.kr 선착순 접수
문의 : 시 광역치매센터 ☎ 472-2027~9

제62회 전국 임해사진 촬영대회 안내

제62회 전국 임해사진 촬영대회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시지회 주최로 우리 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대상 : 일반 사진 애호가
일시 : 9월 1일 오전 10시(당일 현장 접수)
장소 : 월미도 문화의 거리(갈매기홀)
참가비 : 1인당 3만원(중식, 작품 반송료 포함)
접수 마감 : 9월 17일 소인 유효
문의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864-4887, 868-4210

제4기 여성의광장 교육 수강생 모집

여성의광장에서는 다양한 과목의 제4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 인천에 주소를 둔 시민
신청 기간
IT, 어학 : 9월 12일 오전 9시부터/ 그 외 과목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공인중개사반 대기자 :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 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컴퓨터 기초와 실용반만 방문 접수 가능
홈페이지 : ☎ wp.incheon.go.kr
교육 기간 : 10월 1일~12월 15일, 공인중개사반 10월 29일~12월 14일
문의 : 여성의광장 ☎ 815-7101~3



재능 기부, 다시 찾은 행복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아동보호센터 등 다양한 곳에 배치돼 본인이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생 2막을 연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강성원(70세) 님

은퇴 전 직업 : 보안업체 종사
사회공헌활동 담당 업무 :
관람객에게 영화 소개, 상영작 선정 자문

“일하는 거? 좋지!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해.”

보안업체에 종사하다 은퇴 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니어 영화관인 ‘미림극장’에서 일하고 있는 강성원 어르신. 학창 시절 영화를 좋아했던 그는 동시상영 극장에 자주 다녔으며, 영화 기사를 스크랩할 정도로 영화에 폭 빠져 살았다. 은퇴 후 미림극장을 자주 찾던 그에게 이 극장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보다 기쁠 수가 없었다.

강 어르신은 “고전영화에 대한 기억과 영화 평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부탁했다. “이런 사업 좀 더 늘려주면 안 되겠소?”

“아이들 가르치는 걸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은퇴하면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돼 얼마나 행복한지...” 중·고등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한 안성영 어르신은 올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재능 기부를 통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돼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다. 아이들이 배움에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이 들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보람 있지. 이 정도면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문의 : 시 일자리정책과 ☎ 440-4243



안성영(75세) 님

은퇴 전 직업 : 중·고등학교 교사
사회공헌활동 담당 업무 : 학습 지도



아이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행복을 나눕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구도현(남아)
2017년 10월 17일생·미추홀구

부모의 바람
“동생들 잘 행기는 첫째 아들 동현,
인사 잘하고 밥 잘 먹는 둘째 설현,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는 셋째 도현아~
아빠, 엄마가 많이 사랑해.”
아이들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라현우(남아)
2017년 11월 24일생·계양구

부모의 바람
예쁜 두 딸을 키우던 중 두 번의 유산 끝에
기적처럼 우리 가족에게 온 현우.
“누나들이 예뻐하는 우리 막내아들,
늘 지금처럼 건강하자~.”
인천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차지운&차예운(여아 쌍둥이)
2016년 12월 8일생·남동구

부모의 바람
쌍둥이와 함께 인천의 여러 곳을
다니고 있는데, 군데군데 위험하고 불편한
시설들이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인천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시는 여성과 아동 대상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 세이프존을 운영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세이프존으로 긴급 대피하고 SOS 비상벨을 이용해 경찰청에 신고, 폭력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24시 여성·아동 세이프존(안심지킴이집) 운영

설치장소 : 인천시 관내 편의점(연말까지 1,000개소 운영)

내용 : 범죄 위기 발생 시 세이프존으로 긴급 대피하고 SOS 비상벨을 이용해 경찰청에 신고, 폭력 위기 상황에 대처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757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부터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4

브랜드, 어둠 속에 빛을 주다

콜맨(Coleman)

글 이종선 시 브랜드전략팀장



백열등을 발명해 새로운 빛의 세상을 열어준 에디슨이 있는 반면에, 우연한 발견과 발상의 전환으로 전기가 없는 야외에서 새로운 빛의 세상을 열어준 사람도 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이자 우리나라에서도 3대 캠핑용품 브랜드 중 하나인 ‘콜맨’을 만든 윌리엄 콜맨(W.C. Coleman)이다.

윌리엄 콜맨은 학비가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타자기 세일즈맨으로 사회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타자기 세일즈에 재능이 없었는지 판매 실적은 별로였다. 변변찮은 세일즈맨에서 콜맨 브랜드의 창시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길을 걷던 콜맨은 약국의 창 너머로 비치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 그 빛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램프였는데, 눈이 나뻐던 콜맨은 밝은 가솔린 램프 아래에서 책을 보면 잘 보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에는 깜빡임이 잦은 가스등이나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어두운 전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콜맨은 가솔린 램프에서 자신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콜맨은 타자기 세일즈를 던져버리고 램프에 대한 기술 권리들을 구입한 후 램프 판매의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현재 정수기나 비데의 리스 방식을 램프 판매에 도입한 것이다. 가히 리스 판매의 선구자라 할 만하다. 그리고 콜맨의 램프로 불을 밝힌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야간 경기를 하는 이벤트를 펼침으로써 야외에서 새로운 불빛의 세상을 보여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미국 농촌에서 ‘어둠의 태양’이라 불리며 인기를 누렸던 콜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들이 전투 식량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125도의 고열과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소형 버너를 개발해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브랜드가 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여유가 생긴 미국에서는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야외 활동의 필수품인 램프와 버너, 쿨러의 대명사였던 콜맨은 텐트 등 다양한 아웃도어용품을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캠핑 생활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우연한 발견과 발상으로 야외 캠핑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콜맨의 램프처럼, 또 다른 발견과 발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국내 브랜드가 그 일을 해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살아 있는 언어로 덧칠하고 싶은 강화

“강화도는 / 내 어머니의 젓 냄새가 풍기고 / 과거 역사의 핏물이 흐르고 / 현재 번영의 기운이 흐르고 / 미래 정신적 문화의 물결이 넘칠 것이니이다 / 삶에 지쳐 있을 때 강화도로 오시겨 / 그대의 지친 가슴 축축이 젖을 것이니이다.”

이 글은 필자가 2008년도에 출간한 ‘강화도’ 시집의 서문이다. 강화에 육필문학관을 계획하고 현실화한 지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1999년에 육필문학관 부지를 계약했을 때 지금은 아스팔트가 깔린 논두렁길이 모두 흙길이었다. 5년에 걸쳐 문학관을 짓고 2004년 5월에 개관했다. 비가 오면 문학관 방문객들은 강화 땅을 밟은 대가로 흙투성이 자동차를 세차해야 했다. 요즘 들어 그 질퍽한 흙길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처음 육필문학관을 지었을 때 많은 지인들이 내기를 했다고 한다. 인적 드문 강화도 산자락에 문학관을 지어 얼마나 버틸 것인가를 놓고 말이다. 강화도 불은면에 외갓집이 있었다. 어려서 엄마 손을 잡고 대명리 포구에서 통통배를 타고 광성보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외갓집에 다녔다. 어릴 적 추억이 묻어 있는 강화에 육필문학관을 지은 것이다. 내가 이승을 떠나도 나의 아이들과 또 그의 후손이 육필문학관을 지킬 것이다. 나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강화를 지켰듯이.

나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역사적인 이 땅에 문학이라는 뿌리 하나를 내리고 싶었다. 오랜 세월 동안 동시를 가르쳐온 시인으로서의 책임감도 한몫을 했다. 문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친필을 받아 전시하고 누구든 육필문학관을 방문하면 문학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그런 꿈은 이루어졌고 30년 동안 준비한 결과 지금은 300여 점의 친필을 보유하고 있다. 봄, 가을이면 전국에서 문학인들이 찾아온다. 요즘은 일반인도 방문해 시를 읽으며 추억과 순수한 감성을 되찾는다. 육필문학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하지 않고 왔다가 아쉬운 마음을 안고 되돌아갈 독자들을 위해 문학관 입구와 잔디밭에 이재호 시인의 ‘다시

글 노희정 시인, 육필문학관장



강당을 생각하며’ 외에 여덟 개의 문학비를 세워놓았다. 문학관을 방문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이다. 육필문학관을 방문한 분들에게 나는 가끔 자작시 ‘천지송’을 강화도 사투리로 낭독해 준다.

“다산을 위해 태어난 목숨이올시이다 / 이백년의 세월 속에 강화도의 모진 풍파 먹고 살았시다. ...중략...”

강화도 사투리로 쓴 시를 들으며 강화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나에겐 소망 하나가 또 있다. 강화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부터 시작해 여백이 있는 곳 어디에나 시화 액자 하나 정도는 걸려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요즘 그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군청 민원실에 가면 ‘강화여 빛나라’라는 필자의 시가 기둥에 걸려 있다. 지난 해 생긴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개벽2333’엔 나의 시 ‘개벽2333의 부활’이, 육필문학관 소재지인 선원면사무소에는 나의 시 ‘선원면 연가’가 민원실 벽에 걸려 있다. 시는 아름다운 가슴으로 느낀 것을 간결하고 고귀한 상징으로 만들어낸 언어의 집이다. 좋은 시를 읽으면 누구나 감동을 받는다. 광화문 앞 교보문고 건물 외벽에도, 서울시청 건물에도 짧은 시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스치듯 지나가면서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다.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요소요소마다 역사의 흔적이 산재해 있고 그 역사를 발판으로 문화가 별빛처럼 살아 숨 쉬고 있다. 몇 세기를 넘어 갯벌에 게들이 구멍을 뚫고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에 나는 시를 통해 또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고 싶다. 강화 어느 곳이든 시를 걸어놓고 시를 새겨놓아 누구나 시를 쉽게 접하게 하고 싶다. 염하가 흐르는 강화대교 난간에도, 용진진, 화도돈대, 오두돈대, 광성보에도 시의 깃발을 날리고 싶다. 문학인의 빛나는 숨결이 살아 있는 언어로 덧칠한 강화를 만들고 싶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의 ‘서시’ 전문

윤동주의 ‘서시’는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준 시이다. 중학교 때 이 시를 접하고부터 수시로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셋별처럼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빛나는 별처럼 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노력했다. 육필문학관은 그런 나의 노력과 열망의 결정체인 셈이다.

남동구 간석동 향나무



일찍이 향나무는 제례에 쓰이며, 영험한 기운을 품었다고 여겨져 왔다. 우물을 찾은 한 장수가 남긴 말채찍이 소생해 간석동의 큰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도, 그 시절의 상식과 통념에서 살펴보면 마냥 공상과 허언만은 아니다. 우물가의 향나무는 물을 길으러 온 아낙네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준다는 말이 있고, 말채찍은 몽골과 우리나라 장수에겐 축복의 의미로 통했다. 그렇게 옛사람들은 마을의 안녕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이 나무 앞에서 해마다 제(祭)를 올렸고 소망을 품은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 오늘날, 나무는 과거보다 주목받지 못하나 사람들에게 새 가치를 주고자 한다. 늘 변치 않고 푸름을 유지하는 영험한 자태로 500년을 살아낸 존재답게, 나무는 사람들을 작은 사색의 제단으로 이끈다.

나무 높이 : 17.5m / 나이 : 500년
특징 : 통일신라 학자 최치원의 17대손 최림(崔隣)이 심은 나무로 알려졌으며, 우물한 수세로 주텍가 사이에서 이정표이자 주민의 삶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오인영 미추홀구사진인연합 회장